



고품질 나보타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글로벌시장개척부문 대상 대웅제약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사진)은 의약보국(醫藥輔國)의 신념으로 1945년 창립됐다. 의약품뿐 아니라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그룹으로 발달해 있다.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현지법인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춰가고 있다. 글로벌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고 있다.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경기 융인시에 대웅바이오센터를 열어 협업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바이오센터에서는 이 회사가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줄기세포를 포함한 재생의료 분야, 대장균 유래 바이오의약품 연구를 하고 있다. 한울바이오파마와 항체 공동 연구 등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고순도 정제공



정을 통해 기존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비해 불순물을 줄이고 품질을 높인 '나보타'를 개발했다.

불순물 함유량을 크게 낮춘 덕분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시간도 길어졌다. 투여 부위의 결과에 대한 효과 예측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항체 생성률을 낮춰 내성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장기투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 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확보했다. 주름개선 등 미용분야뿐 아니라 치료영역까지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나보타는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적응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끝에 지난해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적응증을 획득해 미용에서 치료분야로 영역을 넓혔다. 대웅제약은 눈가주름 및 안검경련 등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

나보타의 제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기존 50U, 100U, 200U 제품에 이어 내년에는 150U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가루제형 외에 액상 제형도 개발 중이다.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진행된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유럽 및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보톡스와 비교임상 결과를 미국 주요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나보타 판매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2018년께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게 목표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부장은 "나보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 중 후발주자이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출시

백신부문 대상 SK케미칼



SK케미칼(대표 박만훈·사진)은 백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를 지난 8월 국내에 출시했다.

스카이셀플루4가는 한 번의 접종으로 네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다. 계란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무균 배양기를 통해 생산하는 세포배양 기술을 도입해 제조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없앴다. 국산 4가 독감백신 중 유일하게 만 3세 이상 전 연령에서 접종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스카이셀플루4가 임상을 주도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스카이셀플루4가는 국내 성인 1503명, 소아 4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시험을 통해 만 3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면역원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는 "중대한 이상약물반응(SADR)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4가 독감백신은 기존 3가 B형 바이러스 1종이 추가돼 A형 독감 바이러스 두 종류(H1N1, H3N2)와 B형 바이러스 두 종류(야마가타, 빅토리아)를 모두 예방할 수 있다. 기존 3가 독감백신은 A형 바이러스 두 종, B형 두 종 중 하나 등 3종의 바이러스를 예방해준다. 이 때문에 3가 독감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 바이러스 독감이 유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SK케미칼이 올해 공급할 백신은 약 500만 도즈다. 이는 지난해 3가 판매량 대비 약 40% 증가한 물량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스카이셀플루4가는 예방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3가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바이오 신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호주 CSL에 기술 수출한 바이오 신약 물질 'NBP601'이 미국 식품의약품(FDA) 판매 승인을 받았다. NBP601은 A형 혈우병 치료제다. 이 시장은 2014년 3조60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4조9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케미칼은 아직 국내에서 자급화하지 못한 폐렴구균,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에 대한 백신도 개발 중이다.

SK케미칼은 1999년 국산 신약 1호인 3세대 백금류제 항암제 '선플라'를 내놓으며 신약 개발의 첫발을 내디뎠다. 2000년에는 천연물 신약 1호인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를 발매했다. 1992년 은행잎 혈액 순환개선제 기백신, 1996년 세계 최초 관절염 치료 패치 트라스트 등 일반의약품도 개발했다. 1999년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오메드를 국내 완제 의약품 최초로 유럽에 수출하기도 했다.

SK케미칼은 2000년 이후 매출의 12~1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생명과학연구소는 R&D 전문인력 확충과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박카스 대장정·어르신 염색 봉사 ... 사회공헌 앞장

사회공헌부문 대상 동아제약



동아제약(대표 최호진·사진)은 처방전 없이 약국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박카스, 베나치오, 판피린, 아이봉, 마이보라, 가그린, 모닝케어, 템포 등이 대표 제품이다.

동아제약은 사회가 발전해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기업의 이윤이 사회에 환원될 때 더 큰 빛을 발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박카스와 함께하는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이 대표적이다. 1998년 시작된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남녀 각 72명씩 총 144명의 대학생이 20박 21일 동안 우리 국토를 500km 넘게 걸어서 완주한다. 젊은이들이 강한 정신력을 기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동료애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해마다 '박카스, 풀러라 자원봉사' 캠페인도 하고 있다. 세계자원봉사자의 날(매년 12월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14개 지사에 박카스를 보내준다.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펼친다. 지난해에는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희망나눔봉사센터 서울 종로·중구지역본부를 방문해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밑반찬을 조리해 취약계층 50가구에 배달해줬다.

박카스배 전국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 대회도 열고 있다. 차세대 골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216명의 초·중·고교 재학생들이 참가해 명승부를 펼쳤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

는 국내 골프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아제약은 어린이 가그린치과 직업 체험 행사도 3년째 하고 있다. 직업 체험 기회를 마련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미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치과외과는 물론 경찰관 소방관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동아제약은 지난해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염색 봉사 행사인 '비겐어게인(Bigen Again) 캠페인'을 하고 있다. 비겐은 이 회사의 염색약 브랜드다. 염색을 통해 어르신들의 젊음을 되찾아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직접 염색을 해준다.

동아제약은 2009년부터 매년 '사랑나눔바자회'를 열고 있다. 본사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지역주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나눔바자회에서는 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구강청결용품, 생활용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액 기탁해 저소득층 가정 및 소외계층을 돕는 데 쓰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짜먹는 감기약... 기술로 차별화된 의약품 개발

우수일반의약품부문 대상 대원제약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사진)은 진료 현장에서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잘 알려진 제약회사다. 최근엔 물 없이도 어디서든 복용할 수 있는 짜먹는 감기약 '쿨대원'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58년 창업한 대원제약은 2007년 국산 12호 신약인 펠루비정을 개발했다. 펠루비정은 골관절염, 류머티즘관절염, 요통(허리통증) 등에 쓰는 소염진통제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투석지연용 의약품인 레나메진캡슐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에 선 개량신약 부문의 감자라고 꼽힌다. 알약이나 캡슐제형이 목넘김이 불편한 약을 복용하기 좋도록 액상 형태로 개발하는 제제 기술과 생산 노하우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휴대하기 편리한 스틱형 파우치 포장을 적용한 차별화된 제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감기약 쿨대원과 위장약 '트리젤'이 대표적이다. 이 제품들은 효과가 빠르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강점 덕분에 호응을 얻고 있다.

쿨대원은 바쁜 일상으로 약을 제때 챙겨먹지 못하는 현대인을 겨냥한 감기약이다. 국내 최초로 시럽제 감기약을 스틱형 파우치에 담아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다.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제때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해열진통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카페테로 무수물을 혼합한 복합성분으로 일반 감기약보다 효과가 빠르다.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재구매 의사를 보일 정

도로 반응이 좋다. 쿨대원은 종합감기용 '쿨드에스', 기침감기용 '코프에스', 코감기용 '노즈에스' 등 증상별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

위장약 트리젤은 대원제약의 간판 품목을 새롭게 개량한 제품이다. 트리젤은 옥세타진,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 등 3개 성분을 결합한 복합 위장약이다. 위산분비 효소를 억제하고 국소마취 효과를 통해 위통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겔 타입의 제제가 위 점막을 코팅해 진통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켜준다. 나트륨이 없어 고혈압이나 비만 환자도 복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세 가지 복합성분의 작용으로 기존 단일제 성분의 위장약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진통완화 효과를 나타낸다"며 "부담없이 복용할 수 있는 소량인 데다 부작용 위험도 낮다"고 설명했다.

휴대와 복용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대원제약의 제품들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대원제약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감기예방 캠페인도 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